

하루를 시작하며



오지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

나를 이끄는 말의 힘

최근 같은 말을 듣고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마주하며 말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봤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전했음에도 각자의 반응은 달랐다.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 말은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경험과 마음을 거쳐 다르게 닿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다. 같은 문장도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그 사실 앞에서 나 역시 말의 무게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깨닫는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을 나의 말과, 타인의 말에 흔들렸던 순간이 함께 떠올랐다. 그래서 때로 말을 아끼게 된다. 어쩌면 이러한 고민은 관계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래전 힘든 시간을 보내던 남매가 있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챙기던 아이들이었다. 서로 애썼지만 가정의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결국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소식도 멀어졌다. 그러던 올해 설날, 예상하지 못한 새해 인사가 도착했다. 새로운 곳에서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다시 시

작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였다. 초등학교 시절 도움을 받았던 일에 대해 늦었지만 꼭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다고도 했다. 그리고 아이는 이렇게 덧붙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많이 웃고 편히 가셨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아픔을 설명하기보다 누군가를 안심시키듯 건네는 말속에서, 나는 한 사람이 스스로를 지탱해 온 내면의 힘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람을 버리게 하는 힘은 누군가의 조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말의 방향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된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언어로 대하고 있는지가 결국 타인에게 전해지는 말의 온도를 만든다. 말의 힘은 화려한 표현이나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스스로를 이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정작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자주 돌아보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조언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한 문장일지도 모른다. 그 한 문장이 하루를 버티게 하고 다시 걸음을 내딛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어쩌면 리더십은 말을 앞세우는 능력이 아니라 충분히 듣고 필요한 순간에 말할 줄 아는 태도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 앞에서 스스로를 이끌어 가야 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오늘 나는 어떤 말로 나를 이끌고 있는가. 어쩌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한 문장이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설

면허 반납 저조한 고령운전자 안전책 시급

제주에서 고령운전자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저조하다. 자진 반납률을 높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1년 5만3685명에서 2025년 7만4485명으로 4년 새 39% 증가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해마다 4000명에서 6000명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2021~24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776건에 이른다. 이들 사고로 인해 47명이 숨지고 4101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연평균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

난달 26일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상가로 돌진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다쳤다. 이보다 앞선 같은 달 23일에는 8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제주시 한 주민센터로 돌진해 운전자가 다쳤다. 이에 반해 면허 자진 반납률은 지난해 2.25%로 매년 2% 안팎에 그치고 있다. 전체 면허소지자 가운데 100명 중 2명꼴로 반납하는 선에 머물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 20만원(운전 미이력자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운전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 반납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열린마당

안전한 등굣길, 어른들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제훈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아이들이 예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거나, 친구를 따라 무심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는 모습도 보게 된다. 어린 아이들은 교통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어른에 비해 충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아 주정차 차량, 가로수, 전봇대 등에 가려져 차량의 운전자가 늦게 발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른들이 먼저 한 번 더 살피고 배려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 속도 준수와 보행자 우선 원칙이 중요하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아이가 완전히 건넌 뒤 출발하고, 골목길에서는 언제나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또한 보호자와 교사들 역시 아이들에게 올바른 보행 습관과 교통안전 수칙을 반복적으로 지도해줘야 한다. 경찰 역시 신학기를 맞아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단단속 사각지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과 같이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 위주로 보호자를 배치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도한다. 잠깐 속도를 줄이고, 한 번 더 살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하루를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든다.

뉴스-in

"평화의 섬에 쿠데타 상징 516로 합당한다"

민주당 도당 반박 논평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도정을 향해 516로 명칭 변경 논의를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국민의힘 도당의 논리는 공색하기만 하다"고 반박 논평. 민주당 도당은 3일 "명칭 유지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는 응답률 3.9%(20명)에 불과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며 "또한 516로 건설 과정에 강제로 투입돼 발생한 수많은 사상자와 인권 유린 등 아픈 역사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 이들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 쿠데타를 상징하는 516로가 있는 것이 합당한다"라며 "국민이 불편해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 또한 민생이며 국민 정서에 부응하는 것 또한 민생"이라고 주장.

신학기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

○...제주보건소는 3일 개학 시기와 맞물려 B형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을 안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6주차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를 뜻하는 의사환자분율은 52.6명으로, 유행기준(9.1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유행하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예방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A형 인플루엔자 감염 후에도 B형 인플루엔자에 재감염될 수 있어 미접종자는 접종이 필요하다"며 "신학기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4월 30일까지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강조.

제주~인천 직항, 종합적 전략 요구된다

제주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직항노선 개설이 제주관광의 구조를 바꿀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달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지방공항 직항 노선 신설 계획이 담긴 관광정책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분기부터 추진될 제주-인천 직항노선이 외국 공항-제주 공항 간 직항 개설과 맞먹을 만큼의 접근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제주도는 2018년 등 두 차례 제주-인천 간 환승 전용 내항기 도입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국제선 환승 목적의 내항기가 도입되면 외국인인 인천공항에 도착 후 출입국 수속이 나 수하물 재수속 없이 바로 제주공항에서 출입국·세관·검역 절차를

거쳐 수하물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수요 부족과 슬롯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내항기 투입에 소극적이었다. 2025년 제주를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22만2187명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 방문 관광객 중 제주 점유율은 11.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p) 증가에 그쳤다. 외형적 성장에도 점유율 확대는 제한적이었던 셈이다. 정부의 제주-인천 직항노선 추진도 환승 전용 내항기인, 제주-인천 노선 신설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단계다. 방향이 어쨌든 제주 방문 외국인을 늘리려면 일정기간 서울 등에 머문 뒤 찾는 '경유지'가 아닌 최종 관광목적지로 만드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항공사와의 협력 강화, 운임 경쟁력 확보, 해외 현지 마케팅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82-3644 010-4690-3636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제주토박이

작명☆택일☆ 사주☆운세 상담 - 운명과 삶의 흐름을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주와 맞는 좋은 이름을 작명해 드립니다.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상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